

[아프리카중동 비즈니스 정보]

가나 에너지 산업 동향

가나는 다소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풍력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등과 같은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에너지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에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비율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나의 인근 국가들은 자체적인 에너지 거래 시장을 형성하며 아프리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가나 에너지 산업 동향

가나의 에너지 분야는 산업용, 산업용, 가정용 에너지 생산, 전달, 유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나 전기는 주로 수력, 열, 태양열에서 생산됨. 가나의 열에너지 생산시설은 경유, 디젤 등 연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는 비용이 비싸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2015년 초, 주빌리 해안에서 추출된 가스를 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면서 저비용 천연가스 가능성을 발전시켜 에너지 생산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초 TEN 유전에서 가스 생산 역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태양열 에너지의 경우 인터넷 등이 없는 외딴 지역(Off-grid)에서 사용되며 이외 온그리드시설(on-grid facility, 가나 북쪽 시범 시설 지역) 내 시설 한 곳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태양열에너지 총 가용규모는 2MW로 아직까지는 2020년까지 10%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다.

가나는 주정부 소유의 기관들이 에너지 분야에 관여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Volta River Authority, Ghana Grid Company Limited, Electricity Company of Ghana 등이 있다. 한편 가나는 오랜 기간 동안 원자력발전에 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현재도 소규모로 연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에너지 하위 분야 동향

풍력발전의 경우 관련 기업에서 사업 가능성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다. 바이오매스의 경우 가나 전체 에너지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이 있지만, 정부가 바이오매스(목재 연료 형태) 소비를 줄이고 국가 전력망 접근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통적인 에너지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가나 전체가구의 85%가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만 가나 정부는 남은 15% 역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가나는 전기 거래를 위한 지역 시장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아프리카전력풀(WAPP, West Africa Power Pool)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WAPP는 국가 전력시스템 운영을 통일된 지역 에너지 시장으로 통합했다. 가나는 이미 코트디부아르, 토고, 베닌과 연결되어 있으며 부르키나파소와도 연결하고자 노력중이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Ghana-Energy 2017.07.27

<https://www.export.gov/article?id=Ghana-Energy>